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24권, 제1호, 2011년 6월
J. of Korean Soc. of School Health Vol. 24, No. 1, 89-98, June, 2011

재한 중국 조선족과 한족 유학생의 건강증진행위

김소령 · 김정순 · 김동희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A Comparison of Health-promoting Behavior of Han-Chinese to Korean-Chinese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Xiao Ling Jin · Jung Soon Kim · Dong-Hee Kim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ifference in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Han-Chinese to Korean-Chinese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Methods: Subjects were 111 Han-Chinese and 105 Korean- Chinese university students. The data was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January 5 to May 30, 2009. The data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the SPSS/WIN 12.0 program.

Results: The average score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for Chinese students was 2.55, 2.49 for Korean-Chinese students and 2.61 for Han-Chinese students. The mean score of health-promoting behavior of Korean-Chinese students was lower than that of the Han-Chinese group (t=2.048, p=.04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health- promoting behavior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between Han-Chinese and Korean-Chinese university students. The mean score of health-promoting behavior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marital status (t=2.019, p=.046) in Han-Chinese students whil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health-promoting behaviors according to motivation for studying abroad (t=2.732, p=.033) in Korean-Chinese students.

Conclusion: Health-promoting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for both Han-Chinese and Korean-Chinese students by considering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Korean-Chinese may be targeted as a priority group for promoting health behaviors.

Key Words: Health promotion, Behavior, China, Student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급변하는 문명의 변화가 세계를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묶어놓는 사회적 변화를 이루어 냄에 따라 한국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의 수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박연숙, 2009). 특히 한국으로 유학 오는 외국인 학생의 83.9%를 차지하는 중국 유학생의 경우 한국과 중국의 상호파견유학을 시작한 1990년대 초부터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1,714명에서 2009년 48,699명으로 2000년에 비해 약 28배 정도 증가하였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면서 전혀 낯선 환

Corresponding author: Jung Soon Kim,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eomeo-ri, Mulgeum-eup, Yangsan-si, Gyeongsangnam-do 626-870 Korea. Tel: 82-51-510-8301, Fax: 82-51-510-8303, E-mail: tomas@pusan.ac.kr

2011년 4월 21일 접수, 2011년 6월 22일 채택

경에 갑작스럽게 노출되게 되고 한국의 문화, 학문, 정치, 경제, 언어 등을 배우는 과정에서 높은 스트레스, 두려움, 불안정감, 향수병, 집중력저하, 학업부진 등 유학생활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임인숙, 2008; 서지연, 2009). 유학생의 경우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호기심이나 또래 집단의 유혹으로 건강증진행위보다는 그렇지 못한 행위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박성주, 2002). 왕페이(2008)는 중국 유학생이 과음을 하거나 빈번한 음주를 하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유학생들이 유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올바른 건강의 의미 및 삶에 있어서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스스로 건강증진행위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후속연구를 제언한 바 있다.

한편 한국으로 유학 오는 중국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중국 조선족과 한족 두 집단으로 분류된다. 중국에서 소수민족에 속하는 조선족은 19세기이후 조선에서 중국 동북부 지역으로 이주하여 온 이민 집단으로 이중문화(二重文化)에 적응하고 있다. 즉 100여년 이상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중국 문화와 일부 융화되었으나 한국의 전통적 생활풍습을 대부분 계승하여 중국 내 한족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있다(허춘영, 1999).

중국 연변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조선족이 한족보다 건강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적고(이춘옥, 1996), 중국 연변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조선족이 한족보다 건강인식수준이 낮으며(안현옥, 1999) 재한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조선족 유학생이 한족 유학생보다 적응상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며 불안, 대인예민성, 편집성, 정신병 증상을 많이 보였다(허춘영, 1999). 이들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중국 조선족과 한족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는 다를 것으로 생각되며,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집단이라 하더라도 문화차이로 인한 생활양식의 차이가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보고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에 관한 선행연구는 문화차이로 인한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임춘희, 2009), 학교생활적응의 어려움(최금해, 2008), 대인관계의 문제(황해연, 2007)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건강증진행위에 관한 연구로는 일부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의 건강증진 행위를 비교한 박연숙(2009)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내 유학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을 조선족과 한족으로 나누어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 차이를 비교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에서 유학중인 중국 유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연구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재한 중국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재한 중국 유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를 파악한다.
- 재한 조선족 유학생과 한족 유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 차이를 비교한다.
- 재한 조선족 유학생과 한족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재한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재한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의 대상자는 70명에서 150명까지(박연숙, 2009; 허춘영, 1999; 황해연, 2007) 다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선족 유학생 100명과 한족 유학생 100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계획하였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재한 중국 유학생이며, 표본은 P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으로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본 연구에 자의로 참여하기를 수락한 자로서 조선족 유학생 105명과 한족 유학생 111명을 포함한 총 216명이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일반적인 특성과 건강증진행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선족 대상자에게는 한글로 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한족 대상자에게는 한글로 된 설문지를 중국어와 한글에 능통한 전문가가 중국어로 번역한 후 사용하였다. 번역시 오차를 줄이기 위해 한글로 된 설문지의 문항을 중국어로 번역하게 한 후,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P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생 2명에게 의뢰하여 중국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게 하여 한글로 된 원 설문지와 비교하여 뜻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1) 일반적인 특성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대상자의 연령, 성별, 민족, 결혼상태, 종교, 학력, 생활비용 지원, 친지유무, 거주지, 유학동기, 한국 거주기간을 묻는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건강증진행위

Pender (1987)는 건강증진행위를 생활양식의 구성요소가 되는 계속적인 활동으로 더 높은 수준의 건강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환경에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녕수준 및 자아실현, 자기성취를 증진시키기 위한 행위로 정의하고 자아실현, 건강책임, 운동과 휴식, 영양,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 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alker, Sechrist와 Pender (1987)가 개발한 Health Promotion Lifestyle Profile (HPLP)을 박성주(2002)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HPLP는 자아실현 12문항, 건강책임 11문항, 운동과 휴식 6문항, 영양 6문항, 스트레스 관리 6문항, 대인관계 지지 6문항을 포함하여 6개 하위영역 총 4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항상 그렇게 한다'의 4점에서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의 1점으로 4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는 최고 188점에서 최저 4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의 수행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Walker 등(1987)이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2이었고, 박성주(2002)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3,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1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에 앞서 P병원 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자료수집은 2009년 1월 5일~5월 30일까지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동의서와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게 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였고 조선족과 한족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x^2-test를,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고 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국 유학생은 총 216명으로 한족 유학생이 111명(51.4%), 조선족 유학생이 105명(48.6%)이었다. 중국 유학생의 경우 성별분포는 남자가 54.2%, 여자가 45.8%이고 연령은 25세 이상이 54.6%, 25세 미만 45.4%이었고 결혼상태는 미혼이 86.1%, 기혼이 13.9%이었다. 학력은 학부생이 43.5%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생 석사과정이 39.8%, 박사과정이 16.7%이었다. 생활비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이 46.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부 혹은 학교 지원이 30.6%, 자기 스스로 해결이 23.1%이였다. 친지유무는 62.5%가 한국 내 친척이나 친구가 없었고, 75.5%가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다.

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남자가 41.9%, 여자가 58.1%이고 연령은 25세 미만 21.9%, 25세 이상이 78.1%이었으며 결혼상태는 미혼이 76.2%, 기혼 23.8%이었다. 학력은 대학원생 석사과정이 51.4%로 가장 많았고 생활비는 정부 혹은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는 학생이 37.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학생이 33.3%, 부모님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29.5%이였다. 친지유무에서는 65.4%가 한국 내 친척이나 친구가 있었고, 59.0%가 기숙사에 거주하고 35.2%가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

한족 유학생의 경우 남자가 65.8%, 여자가 34.2%이고 연령은 25세 미만 67.6%, 25세 이상이 32.4%이였으며 결혼상태는 미혼이 95.5%, 기혼 4.5%이였다. 학력은 학부생이 61.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 순으로 대학원생 석사

과정이 28.8%, 박사과정이 9.9%이었다. 생활비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이 6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부 혹은 학교에서 지원이 24.3%, 자기 스스로 해결이 13.5%이었다. 친지유무에서는 88.3%가 한국 내 친척이나 친구가 없었고 거주지는 90.0%가 기숙사에 거주하였다.

재한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x^2=12.374, p<.001), 성별(x^2=45.392, p<.001), 결혼 상태(x^2=16.814, p<.001), 종교(x^2=18.014, p<.001), 학력(x^2=29.695, p<.001), 생활비(x^2=24.474, p=<.001), 친지유무(x^2=65.874, p<.001), 거주지(x^2=29.803,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

2.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

재한 중국 유학생의 건강증진행위의 평균총점은 2.55점으로 하부영역 중에서는 자아실현의 점수(3.05±0.52)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관리(2.78±0.59), 대인관계 지지(2.62±0.57), 영양(2.55±0.61), 건강책임(2.17±0.63) 순이었고 운동과 휴식(2.13±0.67)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조선족과 한족 유학생의 건강증진행위를 살펴보면 조선족 유학생은 평균 2.49점, 한족 유학생은 평균 2.61점으로 조선족 유학생이 한족 유학생에 비해 전체적으로 건강증진행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전체 (n=216) n (%)	조선족 (n=105) n (%)	한족 (n=111) n (%)	x^2	p
성별	남자	117 (54.2)	44 (41.9)	73 (65.8)	12.374	<.001
	여자	99 (45.8)	61 (58.1)	38 (34.2)		
연령	25세 미만	98 (45.4)	23 (21.9)	75 (67.6)	45.392	<.001
	25세 이상	118 (54.6)	82 (78.1)	36 (32.4)		
결혼상태	미혼	186 (86.1)	80 (76.2)	106 (95.5)	16.814	<.001
	기혼	30 (13.9)	25 (23.8)	5 (4.5)		
종교	있음	31 (14.4)	26 (24.8)	5 (4.5)	18.014	<.001
	없음	185 (85.6)	79 (75.2)	106 (95.5)		
학력	대학원생 (박사과정)	36 (16.7)	25 (23.8)	11 (9.9)	29.695	<.001
	대학원생 (석사과정)	86 ((39.8)	54 (51.4)	32 (28.8)		
	학부생	94 (43.5)	26 (24.8)	68 (61.3)		
생활비	정부 혹은 학교 지원	66 (30.6)	39 (37.1)	27 (24.3)	24.474	<.001
	부모님 지원	100 (46.3)	31 (29.5)	69 (62.2)		
	자기 스스로 해결	50 (23.1)	35 (33.3)	15 (13.5)		
한국 내 친지유무	있음	81 (37.5)	68 (65.4)	13 (11.7)	65.874	<.001
	없음	135 (62.5)	37 (34.6)	98 (88.3)		
거주지	기숙사	163 (75.5)	62 (59.0)	101 (90.0)	29.803	<.001
	월세	46 (21.3)	37 (35.2)	9 (8.1)		
	기타	7 (3.2)	6 (5.7)	1 (0.9)		
유학동기	가정의 권유	8 (3.7)	3 (2.9)	5 (3.6)	14.367	.130
	돈을 벌기 위해	14 (6.5)	8 (7.6)	6 (5.4)		
	지식을 추구	164 (75.9)	71 (67.6)	93 (83.8)		
	명예	14 (6.4)	9 (8.6)	5 (4.5)		
	유학열풍	16 (7.4)	14 (13.3)	2 (1.8)		
거주기간	6개월 미만	31 (14.4)	14 (13.3)	17 (15.3)	0.178	.915
	6개월~1년 미만	37 (17.1)	15 (14.3)	22 (19.8)		
	1년 이상	148 (68.5)	76 (72.4)	72 (64.9)		

위 점수가 낮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048, p=.042).

조선족 유학생의 하부영역 중에서 자아실현의 점수(2.99±0.56)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관리(2.66±0.61), 대인관계 지지(2.51±0.60), 영양(2.43±0.58), 건강책임(2.23±0.68) 순위이었고 운동과 휴식(2.08±0.64)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한족 유학생의 건강증진행위 하부영역 중에서 자아실현의 점수(3.10±.49)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스트레스 관리(2.90±0.56), 대인관계 지지(2.72±0.52), 영양(2.67±0.62), 운동과 휴식(2.17±0.71) 순위이었고 건강책임(2.10±0.58)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건강증진행위의 하부 영역에서 영양(t=2.937, p=.004), 스트레스 관리(t=3.000, p=.003)와 대인관계 지지(t=2.711, p=.007)의 평균점수가 조선족 유학생이 한족 유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표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

조선족 유학생과 한족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표 4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선족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는 유학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732, p=.033). 유학동기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권유로 유학 오는 '가족의 권유'(2.60±0.15), 학업을 목적으로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2.55±0.47), 유학파라는 '명예를 위해'를 위해(2.54±0.39), '돈을 벌기 위해'(2.35±0.39), 아무 목적 없이 다른 사람 따라 유학 오는 '유학열풍'(2.16±0.25) 순으로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가 높았다. 그 외,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학력, 생활비, 친지유무, 거주지, 거주기간에 따라 건강증진행위의 수행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한족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는 결혼 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019, p=.046). 결혼 상태에 따라 미혼(2.63±0.46)이 기혼(2.21±0.16)에 비해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가 높았다. 그 외, 성별, 연령, 종교 학력, 생활비, 친지유무, 거주지, 유학동기, 거주기간에 따라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고 찰

최근 정부의 외국인 유치정책, 한류열풍과 국내 대학의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이 맞물려 외국 학생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학업 완수라는 목표 성취와 더불어 한국과 다른 정치, 경제 체제로부터 생활 문화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체계에 적응해야 한다(경수영, 장수미, 2010; 나동석, 강석화, 2010). 유학생은 스트레스가 높을 뿐 아니라 신체 건강상의 문제, 학업의 수행이나 정신건강, 일상생활 부적응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로 유학생활 동안 바람직하지 않은 영양섭취, 흡연과 음주 등 건강위해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는 현재의 건강 뿐 아니라 성인기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나동석, 강석화, 2010). 건강증진행위는 환경과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Milio, 1986; Pender, 1987) 본 연구는 국내 유학생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유학생을 조선족과 한족으로 나누어 이들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를 파악하여 재한 중국 유학생들의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유학생들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

<표 2> 재한 중국 유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 (N=216)

영역	전체 (n=216)	조선족 (n=105)	한족 (n=111)	t	p
	M±SD	M±SD	M±SD		
자아실현	3.05±0.52	2.99±0.56	3.10±0.49	1.531	.127
건강책임	2.17±0.63	2.23±0.68	2.10±0.58	-1.479	.141
운동과 휴식	2.13±0.67	2.08±0.64	2.17±0.71	0.940	.348
영양	2.55±0.61	2.43±0.58	2.67±0.62	2.937	.004
스트레스 관리	2.78±0.59	2.66±0.61	2.90±0.56	3.000	.003
대인관계 지지	2.62±0.57	2.51±0.60	2.72±0.52	2.711	.007
전체	2.55±0.46	2.49±0.45	2.61±0.45	2.048	.042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선족 유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 (N=105)

특성	구분	n	건강증진행위 M±SD	t 또는 F	*p*
성별	남자	44	2.53±0.50	0.881	.381
	여자	61	2.45±0.40		
연령	25세 미만	23	2.49±0.41	0.062	.951
	25세 이상	82	2.49±0.46		
결혼상태	미혼	80	2.50±0.45	0.608	.545
	기혼	25	2.44±0.43		
종교	있음	26	2.50±0.49	0.143	.887
	없음	79	2.48±0.44		
학력	대학원생 (박사과정)	25	2.49±0.49	0.003	.997
	대학원생 (석사과정)	54	2.48±0.45		
	학부생	26	2.49±0.43		
생활비	정부 혹은 학교 지원	39	2.44±0.46	0.608	.546
	부모님이 지원	31	2.48±0.36		
	자기 스스로 해결	35	2.55±0.51		
친지유무	있음	68	2.51±0.51	0.473	.493
	없음	36	2.45±0.31		
거주지	기숙사	62	2.48±0.46	0.073	.929
	월세	37	2.51±0.45		
	기타	6	2.44±0.32		
유학동기	가족의 권유	3	2.60±0.15	2.732	.033
	돈을 벌기 위해	8	2.35±0.39		
	지식을 추구	71	2.55±0.47		
	명예	9	2.54±0.39		
	유학열풍	14	2.16±0.25		
거주기간	6개월 미만	14	2.44±0.37	1.175	.313
	6개월~1년 미만	18	2.63±0.63		
	1년 이상	73	2.46±0.40		

그램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주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자인 재한 중국유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고 대학원보다 학부과정으로 유학 오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부분 경제적으로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고 있고 한국에 친구나 친척이 없었다. 조선족 유학생과 한족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조선족 유학생은 여자가 남자보다, 한족 유학생은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고 조선족 유학생은 25세 이상, 한족 유학생은 25세 미만이 많았으며 학력에서 조선족 유학생은 대학원 석사과정, 한족 유학생은 학부생이 많았다. 이는 조선족 유학생은 대부분 여자가 학부 졸업 후 늦은 나이에 유학을 오고 한족 유학생은 대부분 남자가 어린 나이에 유학을 오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또한 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한국 내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반면 한족 유학생은 친척이나 친구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생활비 지원에서 조선족 유학생이 한족 유학생보다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한족 유학생이 조선족 유학생보다 한국에 친척이나 친구는 적지만 경제적 지원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중국 유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 점수는 최고 4점 중 평균 2.55점이였는데 이는 박연숙(2009)이 K시 소재 K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한족 유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 (N=111)

요인	구분	n	건강증진행위 M±SD	t 또는 F	p
성별	남자	73	2.65±0.48	1.161	.248
	여자	38	2.54±0.42		
연령	25세 미만	75	2.62±0.49	0.153	.878
	25세 이상	36	2.60±0.39		
결혼상태	미혼	106	2.63±0.46	2.019	.046
	기혼	5	2.21±0.16		
종교	있음	5	2.56±0.58	-0.275	.784
	없음	106	2.62±0.46		
학력	대학원생 (박사과정)	11	2.60±0.41	0.106	.899
	대학원생 (석사과정)	32	2.65±0.44		
	학부생	68	2.60±0.46		
생활비	정부 혹은 학교 지원	27	2.68±0.45	0.512	.601
	부모님이 지원	69	2.60±0.46		
	자기 스스로 해결	15	2.54±0.47		
친지유무	있음	13	2.72±0.52	0.826	.365
	없음	98	2.60±0.45		
거주지	기숙사	101	2.62±0.46	0.348	.557
	월세	9	2.53±0.49		
	기타	1	2.46±0.57		
유학동기	가족의 권유	5	2.25±0.80	1.620	.161
	돈을 벌기 위해	6	2.51±0.68		
	지식을 추구	93	2.66±0.43		
	명예	5	2.29±0.32		
	유학열풍	2	2.26±0.40		
거주기간	6개월 미만	17	2.66±0.51	1.384	.255
	6개월~1년 미만	19	2.45±0.44		
	1년 이상	75	2.64±0.49		

연구결과에서 최고 4점 중 2.94점보다 낮았고, 또한 동일 연령층인 한국 대학생들의 건강증진 행위 수행정도를 조사한 김준호(2006)의 연구에서 최고 5점 중 3.26점, 박인숙 등(2007)의 연구에서 최고 4점 중 2.70점, 박연숙(2009)의 연구에서 최고 4점 중 2.67점보다도 다소 낮았다. 청소년 후기와 성인초기의 과도기적 발달과정에 있는 유학생은 가치관의 혼란과 부적응의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생활을 통해 형성된 건강위해행위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이미 특정한 습관이 형성되면 건강에 관한 지식이 증가되어도 행동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증진행위 증진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유학생의 경우 한국에서 유학생활이 건강습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유학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본국에 돌아가서도 좋지 못한 한국의 이미지를 가지게 될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건강증진 행위 수행에 따른 장애요인 파악하고 건강증진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보제공 및 관리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조선족 유학생이 한족 유학생보다 건강증진행위 점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조선족 유학생을 위한 건강증진 전략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재한 중국 조선족과 한족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연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춘옥

(1996)의 조선족이 한족보다 건강증진행위가 낮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선족 유학생과 한족 유학생의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상태, 경제 상태, 거주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선행연구에서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상태, 경제 상태, 거주지가 건강증진행위 수행의 영향요인(박성주, 2002; 박연숙, 2009; 허은희 등, 1998; 황유진, 2009)임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차이가 문화차이로 인한 생활양식의 차이로 보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향후 조선족 유학생과 한족 유학생 문화차이에 따른 건강증진행위를 살펴보는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역별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에서 전체 재한 중국 유학생의 경우 자아실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선족 유학생과 한족 유학생의 경우에도 자아실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한국 대학생과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연숙(2009), 일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준호(2006)의 연구들에서 건강증진행위 하부영역 중에서 자아실현영역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인 것과 일치한다. 또한 연구대상 전체 재한 중국 유학생의 경우 운동과 휴식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그 중에서 조선족 유학생은 운동과 휴식영역, 한족 유학생은 건강책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에서 유학중인 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성주(2002), 한국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신애(2005), 김희경(2007)의 연구에서 건강책임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 박연숙(2009)의 연구에서 운동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유학생들에게 건강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지니게 하고 적당한 운동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건강증진행위의 하부 영역 중에서 조선족 유학생의 스트레스 관리평균점수가 한족 유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유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유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그 적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야노미찌코, 2002) 재한 중국인 유학생이 유학생활 적응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허춘영(1999)의 연구에서 한족과 조선족 유학생 모두 적응과정에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조선족 유학생이 한족 유학생에 비해 어려움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고한 결과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재한 중국 유학생의 경우 부모, 학과 교수, 한국에서 함께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중국 친구, 한국 친구와의 정서적 교류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가 달라지므로(손신, 2010) 중국유학생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는 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유학동기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 반면 한족 유학생의 경우 결혼 상태에 따라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가 달랐다. 조선족 유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는 유학동기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권유로 유학오는 가족의 권유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3명의 대상자로부터 얻어진 결과이며, 한족 유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는 결혼 상태에 따라 미혼이 기혼보다 높았는데 기혼인 한족 유학생의 수가 5명으로 결과해석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없고, 본 연구대상자와 연령대가 비슷한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기혼자가 거의 없어 직접적인 결과 비교가 어려운데 이는 한국 내 유학생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건강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족과 한족 유학생 모두 성별, 연령, 종교에 따라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허은희 등(1998)의 연구에서 성별, 연령, 종교에 따라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상이하다. 또한 조선족과 한족 유학생 모두 학력, 거주형태, 생활비에 따라서도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력(조순영 등, 2006), 경제 상태(박인숙 등, 2009), 거주형태(허은희 등, 1998)에 따라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상이하였으나,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연숙(2009)의 연구에서 학력, 거주형태, 경제 상태에 따라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였다. 즉,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의 수행정도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와는 상이한 반면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와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볼 때 향후 다른 국가로부터 유학 온 유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지방의 한 대학에 유학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에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국 유학생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국 유학생을 조선족과 한족으로 나누어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 차이를 비교하여 이들이 특히 취약

한 건강증진행위 수행영역이 무엇인지를 재고하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다.

결론 및 제언

최근 한국으로 유학 오는 학생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사회,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는 유학생들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유학생의 경우 유학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건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재한 중국 유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를 알아봄과 동시에 문화차이로 인한 생활양식의 차이가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한 중국 유학생을 조선족 유학생과 한족 유학생으로 구분하여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를 비교함으로 이들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개발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P대학교에 재학 중인 조선족 유학생 105명과 한족 유학생 111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1월 5일부터 2009년 5월 30일까지이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x^2-test,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유학생은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고 연령은 25세 이상이 많았으며 결혼 상태는 미혼이 많았다. 학력은 학부생이 가장 많았고 생활비는 대부분 부모님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둘째, 조선족 유학생은 25세 이상, 한족 유학생은 25세 미만이 많았고 결혼 상태는 한족, 조선족 유학생 대부분이 미혼이었고, 학력은 한족 유학생은 학부생이 더 많았고 조선족 유학생은 석사과정 대학원생이 더 많았다. 한족 유학생은 대부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친지유무에서 한족 유학생은 절반 이상이 친지가 없고 반면에 조선족 유학생은 절반 이상이 친척이나 친구가 한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한 중국 유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는 최고 4점에서 평균 총점 2.55점으로 나타났고 조선족 유학생은 평균 2.49점, 한족 유학생은 평균 2.61점으로 조선족 유학생이 한족 유학생보다 유의하게 낮았다(t=2.048, p=.042).

넷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선족 유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는 유학동기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권유로 유학 오는 '가족의 권유', 학업을 목적으로 '지식을 추구', 유학파라는 '명예를 위해'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아무 목적 없이 다른 사람 따라 유학을 온 '유학열풍' 순으로 높았고(F=2.732, p=033), 한족 유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는 결혼 상태에 따라 미혼이 기혼보다 높았다(t=2.019, p=.046).

이상에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는 동일 연령층의 한국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 국내 다른 지역 중국 유학생들보다 비교적 낮았고, 특히 조선족 유학생의 건강증진행위가 한족 유학생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므로 이들을 건강 건강증진 전략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부영역별로 보면 자아실현영역의 점수가 높은 반면 건강책임, 운동과 휴식 영역의 점수가 낮아 이러한 영역을 우선적으로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근거로 재한 중국 유학생들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이를 위해 유학생들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에 따른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조선족 유학생과 한족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의 동등성을 확보한 비교 연구 및 다른 국가로부터 유학 온 유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경수영, 장수미(2010).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과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 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 399-421.

김준호(2006).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해.

김준희(2000). **교사의 건강증진행위 영향요인.**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전.

김희경(2007).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요인의 성별비교 분석. **교육연구, 21**(1), 198-219.

나동석, 강석화(2010).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문화적응 능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7), 21-46.

박성주(2002). **중국에 거주한 한국인 유학생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혼 남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광주.

박연숙(2009). **한국 일부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영향 요인.**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공주.

박인숙, 김란, 박명희(2007).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와 영향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3**(2), 203-211.

서지연(2009).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관계.**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완주군.

손신(2010). **중국유학생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

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청주.

안현옥(1999). **중국 연변 지역 조선족 및 한족의 건강수준인식과 생활양식간의 관련성.**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광주.

야노미찌코(2002). **재한 일본 유학생의 스트레스 사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왕페이(2008). **주한 중국 유학생들의 음주형태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구.

이신애(2005). **일부 대학생의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신체조성에 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공주.

이춘옥(1996). **중국 연변 지역 주민의 건강실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임인숙(2008). **중국 조기유학생의 유학생활 실태와 심리사회적 적응의 보호요인 탐색**.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임춘희(2009).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문화에서의 스트레스와 적응.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93-112.

조순영, 이인숙, 함영림, 김주형(2006). 일부 간호대학생들의 건강증진행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SAT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2**(1), 78-85.

최금해(2008). 재한 중국 유학생의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0**(1), 115-138.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2010). **유학생 현황** [Online]. Available:. http://www.moj.go.kr/HP/TIMM/imm_06/imm_60502.jsp [2010, May 4]

허은희, 정연강, 엄순교(1998).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1**(2), 203-215.

허춘영(1999). **재한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 실태: 한족, 조선족 유학생간의 비교.**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황유진(2009). **여성근로자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구.

황해연(2007). **재한 중국 유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와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Milio, N. (1986). *Promoting health through public policy.* Ottwa, Canadian Public Health Association.

Pender, N. J., & Pender, A. R. (1987). *Health promotion in nursing practice* (2nd ed.) Norwalk, Conn: Appleton & Lange.

Walker, S. N., Sechrist, K. R., & Pender, N. J. (1987). The health promotion lifestyle profil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Nurs Res, 36*(2), 76-81.